

Fixed Income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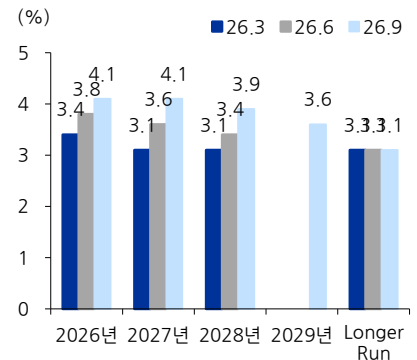
채권 김지나

6148/jnkim0526@eugenefn.com

9월 FOMC 리뷰: 인상기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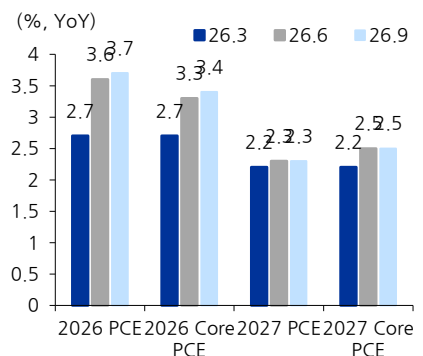
- “ 9월 FOMC,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3.75~4.00%)했으며 결정은 만장일치. 위시 의장, 지난 번 회의에 비해 지정학적 리스크, 경제지표 개선 및 여전히 높은 물가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줬다고 발언.
- “ 9월 인상은 이미 시장에 반영됐지만, 연내 추가 인상을 시사하면서 금리 상승. 10년 금리는 장중 전고점 이하에 머물렀으나, 2년 금리는 4.7%를 돌파하며 추가 인상을 반영.
- “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 18명 중 16명이 연내 1회 이상의 인상을 투표 이 중 4명은 연내 2회 인상 주장. 내년 점도표 상단 역시 동일해 (4.25~4.50%) 현재 기준 최대 2번의 인상 의견을 확인.
- “ 경제전망에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2.3%, 2.4%로 각각 0.1%p씩 상향 했으며 올해 PCE 물가를 3.6%에서 3.7%로 상향해 유가 발 헤드라인 물가 압력이 더 높아졌음을 명시. 올해 근원 PCE 물가 역시 3.4%로 0.1%p 상향해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아졌다고 판단.
- “ 그에 반해 실업률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전부 하향해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 안정을 전망. 연준은 인상을 시행하더라도 경제 전반의 수요 위축이나 고용 부진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높아짐. 10월과 12월 중 세부적인 시기는 유가의 방향성에 달려있긴 하나, 12월 가능성 좀 더 높다는 판단. 앞서 언급했듯이 유가 외 수요 측 인플레도 예상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어 인상의 필요성은 강해지고 있음이 분명. 위시 의장 역시 이번 인상을 통해 완화의 정도를 일부 제거했지만, 금융여건이 긴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연준 위원들의 합치된 의견을 전달. 점도표 중간값(연내 1회 인상)과 일치하는 대목.
- “ 예상대로 연준이 빠른 인상과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를 밝힘에 따라 채권시장 내 기대감은 일부 충족된 상황으로 장기금리 급등은 나타나지 않았음. 그럼에도 통화정책 인상기 돌입, 인상기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물가에 대한 부담, 유가 불확실성 등으로 금리 상승 리스크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음. 다만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등 인상 사이클이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리스크는 단기물에 좀 더 집중될 것으로 예상. 커브는 플랫닝 전망.

점도표, 올해 1회 추가 인상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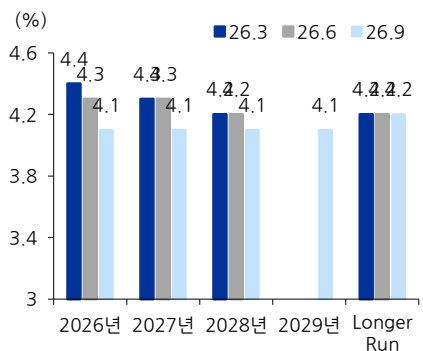
자료: Fed, 유진투자증권

인상 근거, 유가와 수요에 따른 인플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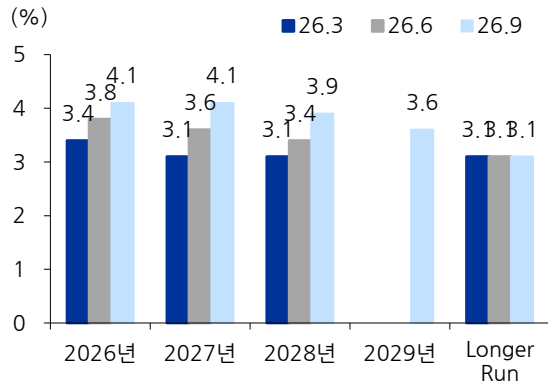
자료: Fed, 유진투자증권

인상해도 고용 안정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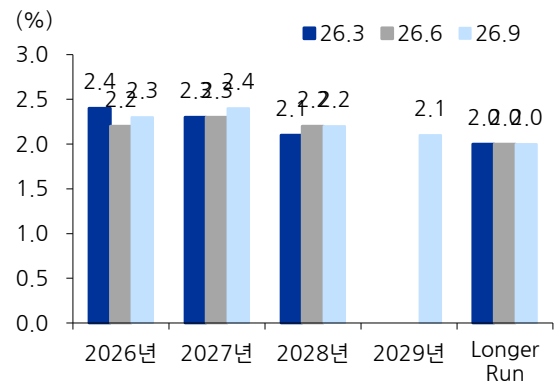
자료: Fed, 유진투자증권

점도표, 올해 1 회 추가 인상 시사, 최대 2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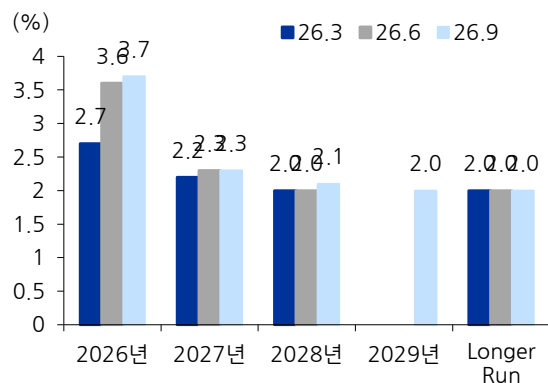
자료: Fed, 유진투자증권

인상의 근거, 경기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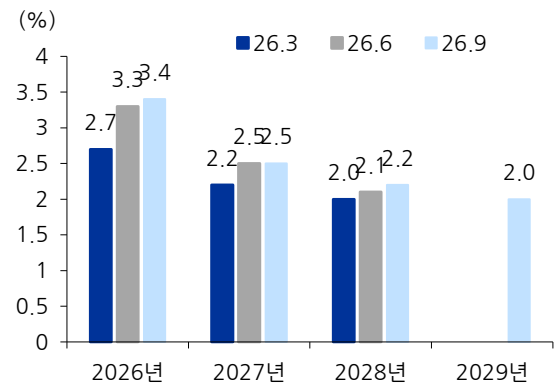
자료: Fed, 유진투자증권

인상의 근거, 지정학적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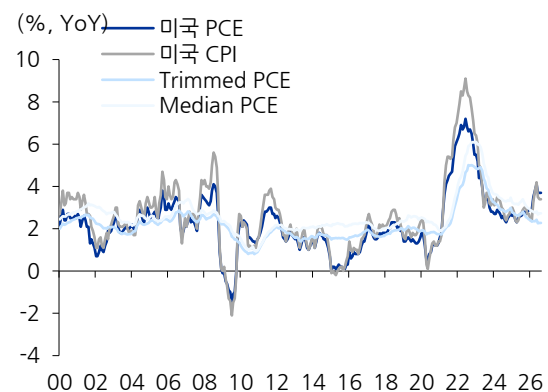
자료: Fed, 유진투자증권

인상의 근거,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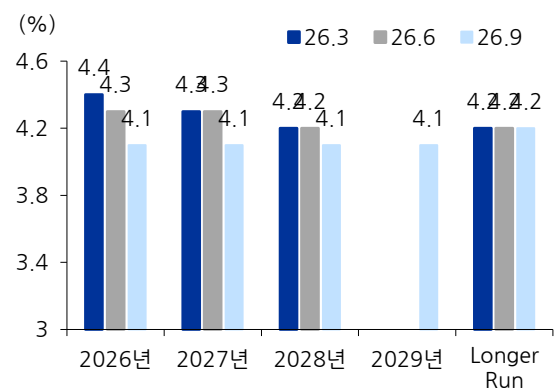
자료: Fed, 유진투자증권

인상의 근거, 여름에도 확인되지 못한 물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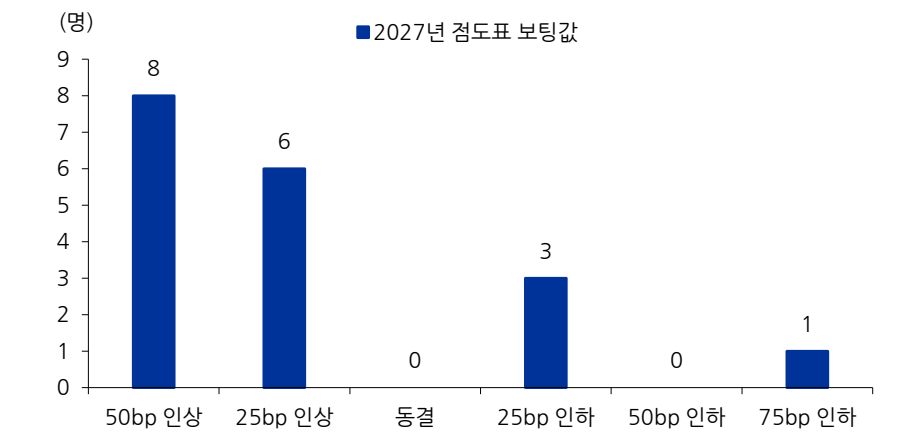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인상에도 고용 안정은 달성될 것이라는 전망



자료: Fed, 유진투자증권

다행히 2027 년은 동결을 전망하는 점도표



자료: Fed,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